

## 중기부, 집중육성 품목에 '국민 참여형 제도' 도입

등록 2020-03-17 10:34:48



【서울=뉴시스】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(사진 = 중소기업부 제공)

[서울=뉴시스] 표주연 기자 = 중소기업부는 R&D 기획 단계부터 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.

중기부는 기술로드맵 집중육성 품목의 기획과정을 R&D 수요자 중심에서 '국민참여형 도출방식'으로 개선한다. '대국민 기술수요조사', '재밍(Jamming-온라인 브레인스토밍)', '사업성 평가단'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.

우선 국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술수요조사가 기술로드맵 누리집(smroadmap.smttech.go.kr)을 통해 4월30일까지 실시된다.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아이디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.

또 IBM이 미래기술예측과 기술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온 재밍(Jamming)을 도입한다. 재밍은 온라인

으로 진행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유망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토론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이다.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술로드맵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.

이어 국민이 제안한 유망기술은 R&D 국민평가단, VC(투자심사역)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'집중육성 품목 사업성 평가단'을 통해 실용성, 시장성 등을 평가받는다. 사업성이 우수한 과제는 2021년 중소기업 R&D 지원품목 후보로 추천된다.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서 집중육성 품목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.

또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집중육성 품목과 전략기술에 대해 중기부는 2021년 R&D과제 공모 시 품목지정 방식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pyo000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